

'수필'이 지닌 진정한 재미

유종호 산문집 「함부로 쓴 화살」

유종호교수의 에세이집 「함부로 쓴 화살」(문이당)은 '에세이'하면 신변잡기식의 잡화점 같은 글모음(미셀러니)이나 관념과 환상에 의해 유폐되어버리는 폐쇄회로적 독백으로 치부되기 일쑤인 우리 문학기 특유의 오도된 풍토에 바로된 인식을 심어준과 더불어 '수필'이 지닌 아름다운 감동을 잔잔하게 전해준다.

유종호교수는 「함부로 쓴 화살」에서 오랜 세월 문학평론가로서 말과 글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온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말의 '은혜로움'의 이면에 '굴레스러움' 또한 존재함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이 그 말에 의해 끊임없이 상투화·규격화되어감을 지적, '경험과 언어 사이의 절망적인 부조화'를 최소화시키고 양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치열하게 언어창조에 투신하는 것이 문학가들의 소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평범한 일상성이 지니는 본래의 가치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천국적 이미지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이란 '좋은 이웃과 푸른 하늘과 꽃과 더불어' 사는 데서 얻어야 하는, 다시 말해 작고 사소한 부분부분들의 집적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사회의 모순들에 대한 무순 거창한 구호나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 세계에 대한 몽환적 독백보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 주변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삶의 본질에 접근해 있으며 독자에게 안겨주는 감동 또한 더 깊고 절실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은이가 사회의 모순이나 현실의 문제에 소홀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사물을 향시 극단적으로

보고 평가하기에만 골몰하는 요즘의 각박한 풍토에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인문주의적 문체'로 이해와 포용의 미학을 절묘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함부로 쓴 화살」에는 또한 아름다운 시들이 적재적소에 자리하면서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한층 생동감있고 절실한 것으로 만드는 데 상승효과를 주고 있다. 동백꽃을 이야기하면서 정지용의 「紅橋」를 인용한다든지, 우리의 행복이 실상 작고 하찮은 일상의 삶이나 이웃과의 친교로부터 얻어짐을 주장하면서 유치환의 「행복」과 「너에게」를 인용하는 배려는 참으로 적절한데, 이는 시를 생활의 일부처럼 사랑하고 접하는 지은이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인용된 시들은 각각 다른 시집으로 묶여 읽힐 때보다 이 에세이의 내용들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읽히며, 그런 까닭에 시가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이 책의 전반부는 마치 한 권의 시화집을 보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참으로 드물게 만나는 아름다운 에세이집이다.

김상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5구 593

'殺父契'로 상징되는 세대갈등

한승원의 연작장편 「아버지와 아들」

한승원의 연작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나남)은 한 가정 속의 세대간 갈등문제를 전통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국전쟁의 비극을 통하여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대립된 개체를 통해 이 땅에 산재해 있는 급진논리와 보수논리의 마주섬을 보여주고, 그 매개체로 전통사회구조 속에 나타난 '殺父契'라는 제도적 풍습을 등장시킨다.

계는 본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를 부추겨주고 북돋워주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여 모인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한창 어지러운 때에 '살부계'라는 일종의 '부친 살해계'가 생기게 된다.

자신의 이념이나 행동지침에 맞지 않는 아버지를 동료로 시켜 살해하고, 본인은 품앗이(?) 형식을 빌어 그 동료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풍습이 친일과 아버지를 죽이던 일제시대부터 6.25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의 아들세대는 아버지의 성과나 결실 속에서 아버지 자체만을 부정했으나 현재에 이르면서 그 양상은 사뭇 다르다. 오늘의 아들세대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나 그 토대까지도 전면 부정하고 나서는 것이다. 아버지세대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깨끗이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자기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역력히 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그것은 가부장적식이 뿌리깊게 내려진 우리 현실에 대한 섬뜩한 반기가 아닐 수 없다.

작가 한승원은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고, 또한 아버지를 극복하려고 한다. 역사는 아들의 아버지 찾기와 아버지 극복하기, 이 두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현재까지 6장으로 이루어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1장에 나타난 윤길의 '이야기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인간의 논리를 통해 쥐의 생존을 묘사하나, 결국 이는 인간의 논리로 다시 귀착되고 만다. 쥐는 최악의 상태에서 잔인하게 동족을 살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쥐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논리일 뿐이라는 것이 윤길의 주장이다.

앞으로도 이 소설은 계속된다고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세대간의 문제를 기존의 여러 소설들이 제기한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해변의 길손」 이후에 나온 한승원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글들에 대한 기대 역시 크다.

남영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70 한국TDK 관리부·회사원

글자심기 이십년

글자 한자 한자를 소중하게 다루어 온 우리의 손길은 20년간 계속되었으며 앞으로도 쉬지 않고 더욱 정성스럽게 다듬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출판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미력이나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 한영가족 모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대한 보답이라 굳게 믿고 있기에 우리 가족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영업 안내

- 컴퓨터사식(MC-PⅢ)
- 전산조판(Morisawa)
- 편집기 및 레이저프린터(Morisawa MK-300)
- 각종 도안 및 편집대행

언제나 한결을 앞서는 조판 전문 업체
漢榮文化社

삼화양행 기종은 레이저프린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MORISAWA MK-300고속편집기 및 레이저프린트

서울·중구 초동21-1(기영빌딩305) ☎ 275-5881, 277-1347 FAX. 277-1347

해방공간에 썩어진 농민소설들

신덕룡 엮음 「농민의 땅」

문학평론가 신덕룡이 엮은 「농민의 땅」(시인사)은 해방공간인 1945년부터 1948년 단정수립 전까지 썩어진 농민소설 작품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책이다.

농민소설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만큼이나 해방공간이 가지는 의의 또한 역사를 통틀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두 부분에 포괄되는 작품을 모아 정리한 것은 당시의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엮은이는 이 소설들에서 3가지의 틀을 도출해낸다. 그 첫째가 해방 직후 새로운 삶에의 희망과 그 희망이 곧 현실로 될 것임을 확신하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보여준 작품들로 엄홍섭의 「새로운 아침」, 박노갑의 「역사」 등이 있다. 둘째는 남한에서의 해방이 농민들이 단순히 기대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다가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채만식의 「논이야기」, 강형주의 「조춘」, 안희남의 「농민의 비애」, 최정희의 「풍류잡히는 마을」 등이 있다. 셋째는 지주들의 횡포와 친일파의 득세로 말미암아 해방 당시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 작품들로 안희남의 「폭풍의 역사」, 이근영의 「고구마」, 박찬모의 「어머니」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보이듯이, 똑같은 공간과 시간에 살았어도 그 현실인식의 차이는 크다. 첫째의 경우는 시대상황에 대한 깊은 천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방의 감격 그 자체에만 몰두하여 새로운 문제에는 거의 무신경한 낙관적 이상주의자의 수준이며,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비록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했

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소설들의 공통점은 낡은 지배질서의 몰락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후 이 땅의 민중들이 원했던 것은 새로운 삶의 기본 전제로 몇백년의 봉건유제와 일제잔재의 진정한 청산이었으며, 또한 직접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의 바탕인 토지문제는 무엇보다도 절대절망한 것이었다. 이 소설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나 주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며, 그 대결구조가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당시 민중의 인식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하겠다.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몇십년이 지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뿌리인 흙을 통해 현실과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6 · 대학성

겨울나기, 혹은 떠나기

기형도 詩集 「입 속의 검은 잎」

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기형도가 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로 당선되기 한해 전, 그러니까 아직 그가 시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기 전에 역시 모일간지 신춘문예에 응모하여 심사위원의 아쉬운 격려를 받은 시 「겨울版畫」 중 “어머니는 내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이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릎을 깎아주곤 하였다”라는 귀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마침 그때가 겨울이 한창 극성인 1월이어서 그런지 ‘어머니의 무릎’과 ‘시퍼런 무릎’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선명한 이미지로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고 난 후 가끔 지면에서 그의 시를 대할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 것은 「입 속의 검은 잎」(문학과지성사)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입 속의 검은 잎」이 그에게는 처녀시집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처녀시집이 곧 유고시집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나는 이 시집을 읽기 얼마전에야 알았다.

그는 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만큼 거칠고 산만한 세상을 표표히 떠나가버리고만 것이다. 무릇 모든 시집이 유고시집이라고 말한 패기만만한 한 젊은 시인의 잠언적 서문이 그의 유고시집 앞에서 떠올려지는 이유는 아마 ‘시에 부여한 위대한 생명력 뒤에 초라하게 남아있는 시인’의 의미라기보다는 ‘시를 통해 영원히 살아있는 시인’을 발견하게 되는 역설 때문일 것이다. 나는 비록 그와 교유한 적도 없고 그러므로 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지만 비로소 불특정한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시를 통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이미 떠나가버

린 후였다는 데서 「겨울版畫」로 나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던 몇해 전의 일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시인 기형도에 있어서 근원적인 이미지는 ‘겨울’이다. 그는 유년시절의 가난을 겨울을 나는 고통으로 내면화시킨다. 그의 겨울은 하나의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공간적 배경으로 불박혀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계절의 순환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기형도의 근원적 고통은 그가 성장한 후에도 계속 남아있다. 다만 유년시절의 고통이 가난으로 드러난다면, 성장한 후의 고통의 실체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는 그 고통의 실체를 찾아해매지만 끝내 그것은 안개 속에 휩싸여 있거나, 단단한 유리벽으로 느껴질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대상에 대한 끈질긴 접근보다 고도의 상징적 장치를 통해 고통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는 이러한 살아있는 동안의 상처받은 내면을 고립된 개별적 경험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착한 어조로 써 보편의 세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오정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계성국민학교 · 교사

“사는 것은 전쟁이지만 진정한 적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지혜와 용기를 선물하세요.

번번이 절망만 거듭하는 까닭을 아세요?
공부도 사랑도 일도 운동도 놀이도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물러섬으로써 이기는
싸움의 예술을 마음깊이
새겨주세요. 아젠 더이상
“난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나를 이기는 싸움

조 하이암스 / 김영선 옮김

739-2520

